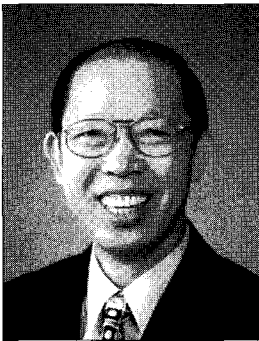




품질 · 환경 제일주의 ‘내실경영’ 추구

그라비아 인쇄 외길 25년



◀ 김중선 (주)정원산업 대표이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단연 소비자의 최대 만족을 위한 제품 생산일 것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기업이 건실히 존립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은 기업 구성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그들 사이의 화목이 아닐까?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주)정원산업(대표이사 김중선)은 10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장기근속자가 50%이상을 차지, 체계적이고 딱딱한 기업이라기 보다는 따뜻한 여느 가정집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회사 앞마당에 넓게 드리운 잔디밭이 더욱 그런 이미지를 주는 지도.

‘남양유업’에서 몇 년간 영업일을 하던 중 비닐에 애착을 느낀 김중선 사장은 1977년 동대문

창신동에 삼원포장공업사로 처음 창업을 하게 된다.

당시 삼원포장공업사는 1도 인쇄기 한 대에 Slitter 1대, 그리고 2명의 인원으로 시작, 1984년 안양으로 공장을 이전해 비로소 자가공장을 소유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된다. 그러나 이런 시련속에서 김중선 대표이사가 한 순간도 소홀히 하지 않았던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신용’만은 잃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과 철저히 지켜온 근검·절약의 생활 태도였다.

이런 그의 가치관은 지금의 (주)정원산업이 1990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우량 중소기업’으로 지정받는데 일조했으며 95년 제32회 저축의 날 ‘국민포상’ 수상에 이어 경기도 ‘장인메달’ 수상의 영광을 안게 했다. 또한 1996년에 모범 납세자상을, 지난 99년에는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내실경영과 지속적인 안정 성장을 모토로 하고 있는 (주)정원산업은 1992년 시화공단에 공장을 신축 이전하고 97년 ‘(주)정원산업’으로 법인 전환을 해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경기도 안산 시화공단에 위치한 (주)정원산업

폴리백 가공 · 인쇄에 주력

현재 유한킴벌리와 대한펄프에 포장용 폴리백 (poly bag)을 납품하고 있는 (주)정원산업은 가공 설비인 평판 실링기, M자 접지기 등을 보유해 다품종 소량 생산이 가능하다.

줄곧 아기 기저귀용 및 성인용 폴리백, 화장지 폴리백 등 폴리백의 인쇄 · 가공에 주력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주)정원산업의 제품은 공통적으로 운반이 용이하고 다양한 모델과 규격이 있으며 가격경쟁력과 유연성이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다.

(주)정원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최신설비 그라비아 인쇄기는 14색도, 15색도의 다색도로 연속 인쇄 및 전후면 인쇄, 분리형 인쇄가 가능하며 수치제어방식으로 장력을 제어해 PE 필름의 특성에 근접, 선명하고 정확한 인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표면 인쇄의 특성상 완제품이 햇

빛에 노출되면 색상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쇄와 동시에 표면 보호 코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15색도 인쇄기는 4+11, 5+10, 6+9, 7+8색도로 분리 인쇄가 가능해 생산성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식 Poly Bag sealing m/c는 punch 점착 및 각종 헤다 가공 장치의 특징을 지닌 다기능 가종 기계이며 Special Handle String Bag은 (주)정원산업 개발팀이 수개월의 연구 끝에 개발, 종래의 화장지 포장대의 세로형 백(bag)이 운반 시 흔들리는 충격으로 접착부위가 쉽게 손상되고 바닥에 닿는 불편함을 감안, 가로방향으로 바꾸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반토록 소비자의 불만을 해소한 제품이다.

이로 인해 지난 97년 '화장지 포장용 포장대'로 의장등록한데 이어, 98년 포장용 포장대 '차



▲ 폴리백 인쇄·가공 전문업체인 (주)정원산업의 생산제품

동 성형 장치' 특허를 획득했다.

이 외에도 (주)정원산업은 1998년 ISO 9002 품질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 3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았고, 4월에는 독일의 TÜV Rheinland사로부터 ISO 14001 환경 인증 시스템을 획득했다.

그러나 어느 곳이나 따뜻한 태양만 비칠 수는 없는 법.

(주)정원산업은 3D업종을 회피하던 1993~94년 무렵, 한차례의 고비를 맞게 된다.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중소기업을 도외시키고 대기업만을 선호해, 반복되는 인력 모집의 실패를 겪었던 것.

(주)정원산업은 이에 주저앉지 않고, 95년 병역특례자와 외국인 산업 연수생의 도입으로 인력을 충원, 지속 성장을 이어 나간 결과 범국가적으로 경제난을 겪었던 IMF시기에도 꾸준한 성장률을 보이며 업계에서 인정받는 폴리백 인쇄 가공 업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직원 복지 시설 및 연수 프로그램 체계화

(주)정원산업의 김종선 사장은 "무엇보다도 가족적인 강한 조직력과 근로자들의 이직율이 낮다는 것을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런 낮은 이직율은 사원 개개인의 능력을 인정해주는 임원들의 배려와 (주)정원산업만의 독특하고 선진화된 복지시설 및 연수프로그램에 기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먼저 (주)정원산업은 매월 1일과 15일 조회를 통해 정신교육, 안전·환경 교육을 실시하며 신입사원 100%를 대상으로 5박6일간 '가나안농원 학교'에서 근검·절약 및 인내심에 대한 연수를 받도록 권한다.

또한 중소기업연수원에서의 의식 및 행동혁신 훈련 및 작업관리 교육, 분임관리 교육, PPM관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원 연수 및 복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으로 체육대회 및 야유회를 통해 직원간의 화합과 신의, 정성, 화목이라는 사훈



▲ (주)정원산업의 15색도, 14색도 그라비아인쇄기

을 실천하고자 애쓰고 있으며,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효율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숙사, 식당, 휴식처, 운동 시설 등의 최신 복지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근무 시간 역시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설정, 팀(Team)별 자율 책임 근무로 자기 개발 시간에 투자하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하고 있다.

품질 개선 발전 기대

“포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장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이 절실합니다. 국내 4년제 대학 포장학과의 신설은 포장 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능력있는 후학들의 양성을 가능케 해, 선진국의 카피(copy)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현재 포장산업 발전의 해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종선 사장은 국내 포장산업의 문제점으로 4년제 대학 포장학과의 부재를 말하면서 포장학도들의 활약에 의한 포장 업계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창립 이후 25년 동안 (주)정원산업은 품질, 기술 및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로 신뢰성 있는 제품을 저렴하게 생산해 ‘품질 제일주의’를 기본이념으로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언제까지나 품질과 환경에 기반을 둔 경영철학으로 (주)정원산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는 김 사장.

유기용제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과 21C의 화두인 환경을 고려해 ‘안전·환경·안정’이라는 모토를 올해의 경영 방침으로 세운 (주)정원산업의 앞으로 모습에 주목해본다. [ko]

박초혜 기자